

# 상반기 스크린, 극장매출 역대 최고...韓 영화 관객은 ↓



2017년 상반기 극장 매출액은 최고를 기록했지만, 한국영화 관객은 오히려 감소했다. 19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2017년 상반기 한국영화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 7,836억 원...전년 동기비 3.4% 증가 관객수 전년 동기 대비 266만 명 증가

역은 7,8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억 원(3.4%↑) 증가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영화 관객 수는 4,1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만 명(5.0%↓) 감소했고,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5%p 감소한 42.8%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반기 '공조', '더 킹' 등 흥행작들이 탄생했음에도 한국영화 관객 수가 감소세를 보인 것에 대해 영진위 측은 "하반기에 대작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영화의 역량이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비수기 '중박 영화'가 줄었기 때문이다. 3월 이후 개봉작 중 3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한국 영화가 없어 비수기 한국영화 흥행작은 해를 더할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외국영화 관객 수는 5,5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6만 명(9.0%↑) 증가했다. 비수기가 시작되는 3월 '미녀와 야수'를 시작으로 4월과 5월에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2' 그리고 6월에는 '미이라'가 차례로 박스오피스 점령하면서 3월 이후 6월까지 줄곧 외국영화가 한국 영화에 우위를 점했다. 상반기 중에서는 CJ E&M이 배급사 점유율 순위 1위를 탈환했다. 상반기 '공조', '조작된 도시', '임금님의 사건수첩' 등 총 15편을 배급한 CJ E&M은 관객 수 1,903만 명, 매출액 1,521억 원을 기록하며 2017년 상반기 배급사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미이라' 등 15편을 배급해 1,469만 명으로 2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는 '미

녀와 야수',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2' 등 7편을 배급해 1,374만 명으로 3위,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는 '더 킹' 등 11편을 배급해 788만 명으로 4위,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는 '보안관' 등 11편을 배급해 768만 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영진위는 영화 산업에 대해 "한국 영화는 겨울 성수기 흥행에 주력하고 외국영화는 3월 이후 비수기를 선점하는 상반기 배급 전략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반기 다양성영화에서는 '너털매끼리: 블랙미러의 부활'이 관객 수 43만 명으로 흥행 순위 1위를 차지했고, 극영화로는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 '문리트'가 17만 7천 명을 동원하며 3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예년과 달리 20만 명 이상을 동원한 다양성 영화가 올해 상반기에 한 편도 없어 다양성영화 시장의 침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 '해투3' 조동아리, 평균나이 8.2세 게스트에 '집단 멘붕'



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웃음을 자아냈던 가족에 능이다. 특히 '80년을 이어라'는 유재석이 본격적인 MC의 길을 열어 세계 만드는데 MC 데뷔 작이다. 당시 유재석은 메뚜기 탈을 쓰고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메뚜기 유재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추억의 예능이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아역 5인방은 앙증맞은 비주얼과 포랑포랑한 자기소개로 조동아리 삼촌들의 심장을 폭격했다. 특히 '리틀 썬'라 불리는 김아윤은 트와이스의 T.T 춤을 추며 깜찍한 싱크로율을 자랑했고 김유정 님은 '리틀 썬'이 출연해 예측할 수 없는 순수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80년을 이어라'는 2000년 방송된 KBS2 자유선언 토요일의 '80년을 이어라'라는 코너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80년을 이어라'는 조부모와 손주가 동반 출연해 끝났기

발랄한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특히 아역 5인방의 순수한 발상은 조동아리 삼촌들에게 본의 아닌 비수로 남아 웃음을 자아냈다. 이로운 유재석이 김수홍을 가리키며 "저 아저씨 아저씨"고 묻자 "외계인? 이상하게 생겼다"고 답해 주변을 폭소케 했다. 또한 최유리는 박수홍에게 "그냥 동네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며 졸지에 박수홍을 동네 백수로 만들어 배꼽을 잡게 만들었다. 그러면 아역 5인방은 순수한 돌직구로 조동아리를 멘붕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스튜디오 곳곳을 놀이터처럼 활보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에 평소 짧은 녹화시간을 지향하는 김용만은 "오늘은 대본을 내려놔야겠다"며 일찌감치 조기퇴근 포기선언을 했고, 유재석은 "이거 몰카 아니냐. 이틀 지후를 보는 것 같다"면서 진행은 못하고 아이들의 뒤만 쫓아다녀 현장을 웃음비자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27일 방송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한 조동아리와 이들을 위락시켜 달라는 최연소 게스트의 케미스트리가 웃음보를 자극할 '80년을 이어라' 특집에 기대감이 증폭된다. '해투3' 제작진은 "조동아리 멤버들이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방송 경력 27년 베테랑들이 아이들 때문에 진땀을 흘리는 진경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다섯 명의 아이들이 각자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더라. 조동아리 멤버들과 아이들이 각각 짝을 지어 게임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때문에 팀마다 각각 다른 케미를 뽐내었다. 각 팀의 색깔을 비교해서 보는 것 또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20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 레드벨벳, 美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 기록



서머린 레드벨벳이 '빨간 맛 (Red Flavor)'으로 히트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레드벨벳은 지난 9일 공개한 여름 미니앨범 'The Red Summer' (더 레드 서머)로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해 대세 걸 그룹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곡 '빨간 맛 (Red Flavor)'을 비롯해 여름 분위기의 총 5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국내 주간 음원, 음반 차트 1위는 물론,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8개 지역 1위, 중국 샤이뮤직 한국 음악 차트 1위 등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얻어 상류발전 서머린

의 탄생을 실감케 했다. 또한 뜨거운 여름과 찌릿한 사랑의 감정을 '빨간' 색으로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인 신곡 '빨간 맛 (Red Flavor)' 역시 공개 직후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올레뮤직, 박스, 소리바다, 몽키3 등 7개 음원 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현재도 각종 음원 차트 TOP 3를 유지, 통연 행진 을 이어가 눈길을 끈다. 한편, 레드벨벳은 오는 20일 Mnet '멜카운트다운', 21일 KBS2TV '뮤직뱅크', 22일 MBC '쇼! 음악중심', 23일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신곡 '빨간 맛 (Red Flavor)'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 김선아·배두나·이유리, 안방극장 사로잡은 3色 여우들



상류사회 진출을 꿈꾸는 간병인 박복자 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자신의 아픔을 숨김없이 뽐내며, 그 어느 등장인물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원하는 바를 하나씩 쟁취해 나가고 있는 것. 특히 매 상대배우마다 각기 다른 카리스마를 그려내고, 캐릭터가 처한 상황에 시청자가 완벽히 몰입할 수 있도록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연기를 신사해 최고시청률 경신에 일등공신으로 활약하고 있다. 배두나는 '비밀의 숲'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경찰대에 합격한 한여진 역으로 주말마다 안방을 찾고 있다. 거친 남자형사들 사이에서 무너지지않고 꿋꿋이 자리잡아가는 가운데, 남자주인공 황시

목(조승우)에게 의지하는 모습대신 오히려 수동적인 여성캐릭터를 벗어나 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약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아버지가 이상해'의 이유리가 맡은 변혜영은 자기중심적이고 냉정한 독설가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내색 않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 그동안 많은 주말극 속에서 구시대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캐릭터들과 달리 혁신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며, 시아다 같은 대사들로 시청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각자 아픔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내면에 아픔을 지닌 인물들을 섬세한 감정연기와 강렬한 카리스마로 표현해내며 극의 흐름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김선아·배두나·이유리의 활약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음력 5월 27일)

★ 헤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복록** 36년생 만사가 형통하다.48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60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2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4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운명** 40년생 외출을 삼가라.52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행운** 32년생 배우는 마음을 길러라.44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56년생 이사에 신중하라.68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0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성취** 37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9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61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73년생 근신하고 자숙 할일이 생긴다.85년생 합심하면 인덕이 크다.



▶**중복** 41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3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5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7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9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행운**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5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9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1년생 합심하면 인덕이 크다.



▶**행운** 38년생 외출을 삼가라.5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인다. 62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4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6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행운** 42년생 구설수에 조심하라.54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6년생 누적된 불만을 부드럽게 처리하라.78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90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은 이룬다.



▶**행운** 34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46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58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0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2년생 꿈을 접지마라.



▶**행운** 39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1년생 산행을 삼가라.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행운** 43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5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7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9년생 기다림을 알아라.91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행운** 35년생 털어낼 것이 있다면 바로 실행하라.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1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83년생 지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